

하락장에 몰리는 서학개미…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 집중

롤리코스터 장세에서 적극 매수
개별 종목 순매수 1위는 테슬라
“기대감 약화된 상황… 실적 따져야”

#직장인 박모(40)씨는 지난 4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식을 주당 239달러대에 매수했다. 지난 1~2월만 해도 평균 매입 단가가 400달러 정도였는데, 이날 주가가 주당 240달러 아래로 급락하자 과감하게 ‘물타기’ (저가에 추가매수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에 들어간 것이다. 박씨는 “주가가 갑자기 많이 내려 조만간 반등할 것이란 생각에 3000만원어치를 추가 매수했다”고 말했다.

용감함일까, 무모함일까. 뉴욕증시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서학개미’ (해외 주식 투자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주식을 끌어 담고 있다.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상품에 개미들이 몰려 들고 있다.

◆레버리지 왕창 산 개미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들은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4



뉴욕증권거래소

/뉴스

일부터 18일까지 미국주식을 33억4860만달러 순매수했다. 이는 올해 전체 순매수 금액 (148억3440만달러)의 22.57%에 해당하는 규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높아진 증시변동성을 오히려 투자 기회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학개미들은 특히 2·3배 레버리지 투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변동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볼 3X 세어스(SOXL)’였다. 순매수 규

모는 8억7088만달러였다.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오를 때는 배의 수익을 얻게 되지만, 그만큼 하락장에서 손실 폭도 배로 높아지는 고위험 상품이다.

서학개미들은 롤리코스터 장세에서 더욱 적극적인 매수 태도를 보였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16.74% 급락하며 4000대가 무너졌다. 이후 9일 18.73% 폭등하며 반등 기미를 보였지만 18일 기준 3832.47을 기록하며 폭락 직전인 2일 (4320.75) 수준을 만회하지 못했다.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된 나스닥에는

상승에 베팅했다. 개별종목을 제외한 상품 중에 2번째로 많이 산 것은 나스닥 100지수를 3배 추종하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3억2663만달러)였다. 나스닥100지수에 대해서는 레버리지나 곱버스(곱하기+인버스) 아닌 1배로 그대로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도 1억520만달러대였다.

개별 종목 순매수 1위는 테슬라였다. 순매수 규모는 4억3247만달러다. 개미들은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2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3X 세어즈’ (2억1522달러)도 사들였다. 테슬라에만 약 6억달러가량을 투자한 셈이다.

◆문지마 투자는 낭패, 펀더멘탈 살펴야

시장의 우려에도 미장(미국 주식시장)을 향한 서학개미의 러브콜은 식을 기미가 없다. 주가 급락을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선 “삼백슬라는 무조건 간다” “추매 찬스다” 등의 글이 잇따랐다. 익명을 원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주가가 많이 빠지자 ‘돈 좀 벌여보자’며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주가 된 경우도 있지만, 손실을 줄이려

‘물타기’에 나선 기존 투자자도 많다”고 말했다.

개미들이 추가 투자에 나서도 될까. 조경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을 주도하는 ‘BATMMAN(M7+브로드컴)’의 평균 전망치와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S&P5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은 18배 수준으로 최근 5개년 평균 19.9배 평균 이하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졌으나, 관세와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연초 대비 실적 기대감은 약화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오늘 22일 테슬라를 시작으로 미국의 주요 기술주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시작할 예정이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S&P500 기준으로 2025 회계연도 1분기 동안 주당순이익(EPS) 예상치를 부정적으로 제시한 기업의 비율은 64%로, 지난5년 평균인 57%와 10년 평균인 62%를 웃돌았다. 이는 올해 1분기 동안 부정적인 가이드언스를 제시한 기업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인터뷰 |

김 주 용 NH-Amundi 글로벌주식본부 펀드매니저

“생성형 AI, 개화기 단계… 액티브 전략 세워야”

(開花)

‘HANARO 생성형AI ETF’ 운용
“소섹터 ETF 경쟁 본격화 될 것”

“계속 오르는 주식은 없지만, 생성형 AI 분야에서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그룹 ‘매그니피센트7(M7,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애플·아마존·알파벳·메타·테슬라)’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생성형 AI 테마가 최근 들어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투자자들의 선택도 복잡해지고 있다. 고점 논란과 관세 리스크, 금리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기술주 전반에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시점을 ‘전략의 전환점’으로 삼은 ETF가 있다. NH-Amundi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HANARO 글로벌생성형AI 액티브 ETF’다.

출시 초반에는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등 하드웨어 중심의 미국 기술주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유연한 대응을 통해 방향을 크게 틀었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2월 중순 이후 현금 비중을 일시적으로 10%까지 끌어올리며 리스크를 조절했고, 이후 중국 ADR과 동남아·중남미 기업 편입을 확대했다.

단순한 테마 추종보다는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에 무



김주용 NH-Amundi 글로벌주식본부 펀드매니저가 생성형AI 종목을 채택한 HANARO 글로벌생성형AI 액티브 ETF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NH-Amundi자산운용

게를 신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해당 ETF를 운용하는 김주용 NH-Amundi 글로벌주식본부 펀드매니저는 “생성형 AI 산업은 아직 개화기 단계”라며 “빠르게 도태되는 기업도 많고, 반대로 급부상할 여지도 큰 만큼 액티브 전략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TF 구성도 그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HANARO 글로벌생성형AI 액티브 ETF는 약 3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

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비중은 소프트웨어 50%, 하드웨어 30%, 인프라 20%로 조정됐다. 인프라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기업들이 포함된다.

지역 전략도 글로벌하게 확장됐다.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 등 성장성이 높은 국가의 ADR 편입 비중이 높아졌고, 대표적으로 TSMC, 알리바바, 중남미의 메르카도리브레(Mercado Libre) 등이 포함됐다. 현재 미국 외 지역의 비중은 전체의 약 25~30% 수준이다.

김 펀드매니저는 “AI라는 테마가 이제는 옥석 가리기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과거 2년간은 인프라나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형 AI ETF가 주를 이뤘다면,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에 집중된 소섹터 ETF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아직도 미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유럽,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에 기회가 열려 있는 만큼, HANARO 글로벌생성형 AI 액티브 ETF는 그런 분산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회사채 시장 양극화… 기업 자금조달 ‘축각’

업종·신용등급 등 선호도 차이

호텔신라는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2000억원 모집에 1조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400억원 모집에 3700억원, 3년물 1200억원 모집에 5350억원, 5년물 400억원 모집에 95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호텔신라는 개별 민간 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9bp, 3년물은 5bp, 5년물은 9bp에 목표액을 채웠다. # 하림지주는 이달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흥행에는 실패했다. 1200억원 모집에 128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지만, 2년물에서 100억원을 못 채웠다. 지난달 SLL중앙(신용등급 BBB)이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도 1년물 150억원 모집에 120억원의 주문이 들어와 일부가 미달됐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기업 간·신용등급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자금시장 경색 위기를 뚫고, 회사채 발행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투자은행(IB)과 DB증권에 따르

면 . 4월 회사채 유통융합률은 287%였다. 하지만 1~2월 평균 368%보다 떨어졌다. 자금유입강도는 ‘AA’급이상 3.0배, ‘A’급이하 2.4배로 기초체력이 탄탄한 우량 회사채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수요예측에서도 양극화를 예상한다.

이번 주(21일~25일)에는 한진칼(BB B+), SK브로드밴드(AA), 한화시스템(AA-), 대웅제약(A+), 한국토지신탁(A-), GS칼텍스(AA+), 한솔제지(A), SK이노베이션(AA), LX관토스(AA-), 현대백화점(AA+), 롯데쇼핑(AA-), 대한제당(A-), GS리테일(AA) 등이 회사채 발행에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 나선다.

박경민 DB증권 연구원은 “A등급 이하에서는 업종 모멘텀에 따라 발행금리가 금리밴드 상단 또는 하단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업체 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흙플러스 사태 이후 비우량채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나 재무부담이 높은 기업들의 조달 부담이 예상된다”고 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IRP계좌 ‘ETF 자동투자’ 서비스

NH투자증권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대상으로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NH투자증권 고객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지정한 날짜에 약정한 금액만큼 원하는 ETF에 자동으로

정기 투자할 수 있다.

적립식 투자금액은 매월 ETF 종목당 5만원 이상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NH투자증권 모바일앱(QV, 나무)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관리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허정윤 기자

교보증권, 플로깅 등 사회공헌활동 강화

교보증권은 최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2분기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보호와 지역공동체와의 동행에 초점을 맞췄다. 교보증권 드림이 사회봉사단은 친환경 플로깅(plogging), 자원재순환, 복지시설 봉사활동, 헌

혈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2분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한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